

축 사

안녕하십니까?

완도군의회 의장 조인호입니다.

황금빛 들녘을 바라보면서 농부의 풍성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결실의 계절에 민족예술의 혼을 되살리고 국악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제12회 청해진 전국 국악경연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장보고의 고향,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방문하여 주신 전국 국악인 여러분을 5만여 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앞장서 오면서 청해진 국악경대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사)한국 국악협회 완도군지부 박철암 지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악인 여러분!

현대 대중매체의 자극적인 대중문화를 자주 접하는 요즘 세대에는 국악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국악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우리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정신문화 함양과 민족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전통예술입니다.

제12회 청해진 전국 국악경연대회는 국악 사랑이 지역사랑이요, 나라 사랑이라는 실천을 목표로 우리 음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우리의 전통예술이 세계 속에서 예술성을 인정받고 전통문화유산으로 계승 발전되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계기의 장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든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문화 예술정책에 맞춰 주민들이 국악에 대한 관심과 감상의 생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2회 청해진 전국 국악경연대회에 참가하신 국악인 여러분들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

하여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즉악의 가락에 젖어
신명나게 어울리는 축제의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